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고전 10:31-33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100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세 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이고,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교에서 전교생들에게 장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전체 학생의 3%만이 자신이 왜 공부를 하는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생들을 20년 후에 다시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를 다닐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유명인사가 되고 재물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지만, 그 질문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정말로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세 가지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먹고 살아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는 먹기 위해서도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 자식을 낳고 키워 성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공동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소설가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왜 인생이 기쁨이 없는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곧 내가 살고 내가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최선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축구경기에서 우리나라 몇몇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하던 전통은 아마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영무 선수가 그 원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영무 선수가 대표 팀을 떠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이 골을 넣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그것이 그 선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기에 선수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흥기라는 감독의 권유로 다시 복귀하면서 다시 골을 성공시킬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영무 선수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또 다른 목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본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않은 개미와 같은 사람, 혹은 거미와 같이 남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 혹은 꿀벌과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꿀벌과 같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원성을 들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속담에 “공부해서 남 주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공부해야 하지만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남 위해 살다보면 나도 삽니다. 오늘날 문제가 나만 살겠다고 무슨 일이든 다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기자 필립 옌(Philip Yen)씨는 40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무려 8천여 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을 그의 회고록에 적었는데 인생에는 Star 형과 Servant 형이 있다고 술회했습니다. Star 형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랑만 하는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사람이고, Servant 형은 그저 어떻게든 섬기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섬기려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지체된 교회를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칼뱅(Jean Calvin)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칼 힐티(Karl Hilty)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행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족한 면을 그저 심판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일찍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겠다는 것은 가장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어떤 특이한 병을 치료하는特效약을 발견한 과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그 약을 발견했는데도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어찌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이 뉘 것이 되겠습니까?

2차 대전 후 독일의 한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일곱 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하고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9:16 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요 6:39 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될지언정 무슨 일이 있든지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전도하지 못한 것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더 잘 믿었더라면 나를 보고 이미 예수 믿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이미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빛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자 할 때는 죽지만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과 이웃에게 유익과 전도의 세 가지 목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